

일제 저항시인 6명 작품 엮은 시집 日서 출간 눈길

윤동주·이육사·한용운 외 심훈·이상화·조명희 첫 포함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편역...주요 작품 10편씩 게재

윤동주, 이육사, 한용운, 심훈, 이상화, 조명희... 일제강점기 독립 정신을 추구하고 시로 저항했던 대표 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시집이 일본에서 출간돼 눈길을 끈다. 윤동주, 이육사, 한용운 시집은 출간된 바 있지만 이들 외에 심훈, 이상화, 조명희가 묶여 그들의 주요 작품이 한글과 일본어로 일본에 소개된 것은 처음이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조선 시인의 독립과 저항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작품집은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가 편역했으며, 일본 후바이사에서 출간했다.

책은 조선의 저항 시인 윤동주, 이육사, 한용운, 이상화, 심훈, 조명희의 주요 작품을 10편씩 게재했으며 각 시인의 생애와 활동도 간략하게 정리했다. 독자들에게 익숙한 작품도 있지만 다소 생소한 시들도 있다.

김정훈 교수는 “이들 시인들은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저항 시인들”이라며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일본에서는 윤동주 시인 외에 이들 시인들이 소개되고 있다”며 “K문학을 좋아하

는 일본인에게 읽히는 것은 저항 시인의 세계에 내재하는 작품의 가치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민족문학이나 저항문학, 민중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은 대학입학을 위해 광주 대성학원에서 문명란 시인에게 수업을 들으면서였다. 그때 들었던 문명란 시인의 시대에 대한 아픔과 민중을 향한 사랑에 감동해 문학연구로 진로를 정하게 됐다.

강의도 재미있었지만, 조선 시인의 저항과 독립 정신을 통해 신근부세력 지배 현실을 은유적 화법으로 지적하던 문 시인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다. 민주·민중 의식과 민족통일을 강조하는 결연한 의지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지요.

김 교수는 지금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배웠던 문학적 감성이 체내에 깊숙이 배어 불췌불췌 솟는다고 한다. ‘저항문학’ ‘역사의식’ 같은 말을 들을



김정훈 교수

때마다 시대 상황은 물론 부조리와 불의의 현실을 떠올리게 된다.

이번 시집에 수록된 구체적인 시는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이육사), ‘자화상’ (윤동주), ‘현해탄’ (심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절정’ (이육사),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나의 고향이’ (조명희) 등이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십이성좌(十二星座) 그 슬한 별을 어찌나 노래하겠나.//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 때 보고 저녁 때 때도 보는 별/ 우리들과 아주 친하고 그 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 볼 동방의 큰 별을 가지자// 중략//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다만 한 개의 별일망정/ 한 개 또 한 개의 십이성좌 모든 별을 노래하다.”

이육사 시인의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는 자주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희원한다. 시집 전체 제목을 대표하는 표제시는 ‘한 개의 별’에 담긴 우리 민족의 해방의 절실함과 ‘동방의 큰 별’로 나아가자는 강렬한 열망을 포괄한다.

이에 앞서 김 교수는 ‘문명란 시집-적녀에게’, ‘김준테 시집-광주로 가는 길’, ‘마쓰다 도키코-시집 조선 처녀의 춤’을 번역 출간한 바 있다. 또한 나주 출신 저항시인 이석성이 발굴돼 논문을 작성 중이었다.

그는 “일련의 작업을 계기로 의식의 저변에 잠재하고 있던 조선의 저항 시인들을 일본에 소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많은 이들이 일제강점기 저항시인들의 독립 정신을 시를 매개로 계승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집을 펴내게 되는 과정에서 김 교수는 시인이자 문명란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 리빙한 대표와 논의 등을 거쳐 책을 완간하게 됐다. 향후 남도가 배출한 민족민주시인 문명란 시인의 뜻과 유지를 기리는 기념사업회에도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리빙한 시인은 “민중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실천운동과 민족운동에 헌신했던 저항시인들과 남도가 배출한 문명란 시인이 숭고한 뜻을 이어받는 작업들이 다채롭게 전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구려 고분벽화 삽화
225점 온라인 공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세계문화유산인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고구려인들의 풍속과 하늘 세계의 모습, 영원불멸의 삶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다. 세계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의 삽화 225점이 온라인으로 공개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구려 고분벽화를 삽화(일러스트·사진)로 제작해 지난 7일부터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에 무료로 공개한다.

문화재연구소는 2018년부터 옛 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을 고증해 고구려 벽화 문양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 결과물을 지난해 ‘천상의 문양예술, 고구려 고분벽화’ 도록으로 발간했는데 이번에 원본 파일을 무료로 공개하는 것.

고구려 고분벽화 문양 삽화 자료들은 한국 고대미술의 정수로 알려진 ‘강서대묘 사신도(四神圖)’를 비롯해, ‘무용총의 수렵도’, ‘각저총의 씨름도’ 등 다양한 문양들도 만나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등글게 등글게’ ‘앞으로’ 작곡가 이수인을 기억하다

코리아그랜드오페라단

12일 장아트홀 추모음악회

“등글게 등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춰시다-”(‘등글게 등글게’)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자꾸는 등그니까-”(‘앞으로’)

‘등글게 등글게’, ‘앞으로’ 등 유명 동요와 가곡으로 알려진 작곡가 이수인 선생. 최근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음악회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동양의 슈베르트, 작곡가 이수인 추모음악회’가 오는 12일 오후 4시 장아트홀(광주시 동구 대외동 8-1)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를 주최한 코리아그랜드오페라단(단장 장흥식)은 동요 ‘앞으로’ 외에도 가곡 ‘별’ ‘고향의 노래’ ‘내 맘의 강물’ 등 100여 곡의 가곡과 500여 곡의 동요를 남긴 이수인 선생을 향한 존경심과 그리움을 공연에 담았다고 밝혔다.

공연은 이수인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그의 노래들로 꾸며진다.



‘동양의 슈베르트, 작곡가 이수인 추모음악회’가 오는 12일 오후 4시 장아트홀에서 열린다.

레퍼토리는 ‘술개그늘 이야기’, ‘불타는 강대나무’, ‘그리움’, ‘별’, ‘외갓길’, ‘석굴암’, ‘내 맘의 강물’, ‘고향의 노래’ 등이다.

공연은 이대형이 기획했으며 무대에는 코리아그랜드오페라단 단장이자 테너인 장흥식을 비롯해 소프라노 박경숙·이승희, 메조소프라노 신은정, 테너 국경완·정평수, 바리톤 이하석 등이 오른다.

고재은 양(광주대부설초 3년)과 박세준 군(광주조봉초 5년)도 무대를 꾸미며, 피아노 김지영도 함께한다.

한편 지난 2000년 창단한 코리아그랜드오페라단은 지역의 아마추어 성악가를 발굴하는 신인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문의 010-8624-044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대, 14일 작은 음악회

피아노·플루트로 가을 정취

다가오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대학교 교양교육원(원장김정아)은 2학기 개강을 맞아 여름 무더위와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학생과 교수들을 위해 14일 낮 12시40분 호심기념도서관 1층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 ‘가을의 인사’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교수들도 학기 초의 분주함을 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피아노 듀엣곡과 플루트 독주곡으로 구성됐으며 열가 ‘사랑의 인사’, 비제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피아졸라 ‘리베르 탱고’,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브람스 ‘헝가리 무곡’ 등을 들려준다.

공연에는 피아노 김정아·김형미, 플루트 이주혜가 참여한다. 문의 010-4621-926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정아 교수

광주문화재단, 추석맞이

‘풍요로운 문화누리 이벤트’

광주문화재단은 추석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풍요로운 문화누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기간 내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고 결제 내역을 인증하면 된다. 결제 금액이 높은 순으로 50명에게 상품을 차등 증정할 예정이다. 1~20번째 당첨자에게는 농산물 쌀(4kg), 21~50번째 당첨자에게는 수산물 김(1박스)을 지급한다. 결제 금액이 동일한 접수자가 있을 시 응모 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된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누리 블로그에 게시된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표는 오는 10월 초 당첨자에게 문자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 까지이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서 신규 발급 및 재충전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4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